

42 진보는 나선형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의 이름이다. 즉 대립하는 사고를 서로 부딪쳐 투쟁시킴으로써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론이다. 철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변증법의 프로세스는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정(正) : 명제 A가 제시된다. = 테제(thesis)
- ② 반(反) : A와 모순되는 가명제 B가 제시된다. = 안티테제(antithesis)
- ③ 합(合) : 마지막으로 A와 B의 모순을 해결하는 통합된 명제 C가 제시된다. = 진테제(synthesis)

• 헤겔에 의하면 이렇게 제안된 통합 명제에 관해서도 다시 안티테제가 제시되고, 양자가 다툼으로 한층 더 새로운 명제가 성립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헤겔의 주장이다.

• 헤겔에 따르면 이 변증법은 진리의 탐구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사회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사회 형태가 제안되고, 결국에는 양자의 모순을 평정하는 형태로 진테제로서의 이상 사회가 제안된다. 헤겔은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며, 이상적인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인류에게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우리는 공적인 입장이든 사적인 입장이든 항상 트레이드오프(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쪽을 희생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상태로 양자택일을 종용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선택 사항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 헤겔이 지적한대로 지적인 투쟁이나 대화를 통해 양자를 양립시키려는 태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 우리는 이러한 나선형 발전의 속성을 앞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변증법에 의한 나선형의 발전은 옛것이 편리하게 개선되어 부활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과거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주로 정보통신 기술력에 의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 부활할 것이다.